

어린이 손목 비틀기 식 한·중 FTA 강력반대!

- 이제 걸음마 단계인 오리산업에 회생불가의 치명타 될 것! -

한국오리협회

■ 지난 1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한·중 FTA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힌데 이어 어제(1.12)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중 FTA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태호 본부장은 협상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중국산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며 피해가 한미 FTA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한·중 FTA는 그리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듯 석연치 않은 인상을 남겼다.

■ 지난 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물 중 중국보다 싼 품목은 단 한 가지도 없으며 최고 15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고 있음을 공식발표한 바 있고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역시 한·중 FTA의 피해를 한·미 FTA 대비 최대 4배까지 전망하는 등 중국과의 FTA는 역대 가장 큰 피해가 예견되는 무역개방임을 밝혔다. 공식 연구 발표자료는 차치하고라도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과 무역시장이 개방됐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시나리오이다.

특히, EU, 미국과의 FTA로 이미 너무나 많은 피해를 떠안은 우리 농축산업 입장에서 중국과의 FTA는 그나마 미약하게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마저 밟아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도 아니고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다지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다니 정말 오리새끼도 비웃을 만큼 허무맹랑하지 않은가.

■ 당장 오리산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오리시장이자 생산국으로 국내 오리 산업과 그 규모 자체가 다르다. 농가 수는 1,200배, 사육수수는 53배 차이 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이후 중국이 AI 상시발생국으로 분류, 국내 생육수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오리산업은 이를 기반으로 중국시장을 배제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밖에 머무르며 업계 자체적인 수급조절과 노력을 통해 시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리 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근 몇 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 시스템 등은 타 축종에 비해 아직도 열악하기 그지 없다.

■ 최근 우리 협회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합동 연구한 「중국의 오리산업과 한·중 FTA 협상이 국내 오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시 국내 오리산업 피해 추정액이 약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직접적인 피해액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90년대 중국산 저급 오리육이 국내 시장을 잠식했을 때 오리육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저하된 사례가 다시 나타날 경우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중국과의 FTA 추진은 격투기 선수가 어린 아이 손목 비트는 형국으로 이미 미국과 EU의 사례와 같이 결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불가능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결국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토지, 인력을 무기로 국내 오리시장 뿐 아니라 농축산업 전체를 잠식해 나갈 것으로 그 피해는 특히 국내 가금산업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농업인의 후손이며 자식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협회는 전국의 오리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중국과의 FTA 체결을 결사 반대함을 알리며 정부는 당장 중국과의 FTA 협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 축산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상을 강행한다면 오리 산업 뿐 아니라 전 농축산업계가 일치단결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